

# 北 김정은 새로운 직책 추대되나

### 6일, 36년만에 당대회...중앙위원회·최고위원장 신설 관심

‘김정은 시대’가 선포될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부위원장 제1위원장이 새로운 직책에 추대될지 주목된다. 현재 김 제1위원장의 당 직책은 제1비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그를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당 비서국의 최고책임자를 의미하는 제1비서라는 직책을 부여한 것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2일 “3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일성도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1966년 10월 개최된 제2차 노동

당 대표자회에서 당 기구가 개편되면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이 폐지됐다. 50년 전에 사라진 직책을 부활시켜 김 제1위원장을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최고지도자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두면 제1비서는 두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둘 것인지, 중앙위원회에 최고위원회를 신설해 위원장을 둘 것인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중앙위원회 위원장 혹은 최고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만들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을 명실상부한 정통성 있는 지도자로 부각시

키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으로 아버지인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했다는 점에서 주석이나 총비서 직책을 승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공산당이 사용하는 ‘총서기’나 과거 소련 공산당이 사용했던 ‘서기장’이라는 직책도 자주성을 강조하는 북한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미 북한의 당·정·군을 지배하는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 北 당대회에 대표단 보내지 않을 듯”

중국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북한 노동당 대회에 대표단을 아예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 소식통은 2일 “바로 2~3일 전에도 (중국정부의 대표단 파견) 동향을 살펴봤지만, (그런 동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으로 (북한의) 외부 초청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중국도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

건 70돌 기념일(10월 10일) 때와 비교해도 중국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북중 양측은 당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을 6일 앞두고 류윈산(劉雲山) 중국국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의 방북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번 당 대회에 관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 뒤늦게 베이징 외교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대표단 파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조선의 당과 인민 자신들의 국내정치 생활에서 하나의 큰일”이라고 대답했다. 화 대변인은 “그것은 조선의 당과 인민 자신의 국내 정치 생활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라며 “우리는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감한 질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번 당대회를 중국과는 무관한 북한의 국내행사라 선을 그은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베이징 관측통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중국 대표단이 36년 만에 개최되는 북한의당

### 北 노동당 대회 어떻게 진행되나

제7차 노동당 대회  
-기간: 2016.5.6~9(예상)  
-참가 대표자 예상 수: 3천여명  
-1980년 6차 대회 이후 36년만에 열릴 김정은 시대 개막 선포 무대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 새로 선출, 중앙위 정치국과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 등 핵심 지도기관 구성원 발표되는 등 지도부가 큰 폭으로 개편되는 계기이기도 함.

3월 중순 당대회 참가 시: 군 단위 후보자 선별 절차 진행  
참가 대표자 선출 방식  
시·군 단위에서 후보 추천  
도 단위에서 선출 절차 발동  
중앙당에서 최종 선출

4월 중순 당대회 참가 대표자 명단 확정  
확정 후 지역별 정치학습 등 준비 모임과 고등반 숙소 확보, 당대회 개최 전 사전교육 등 20~30일 정도 소요 예상

5월6일 개최, 9일 폐막 (4일간 진행 예상)  
당대회 통상 절차  
개회식 ▶ 주석단·대표자각심사위·회의록 편찬위·서기부 선거 ▶ 의제선정 ▶ 축사 및 축전 ▶ 중앙위 및 중앙군사위 보고 ▶ 분야별 토론 ▶ 당지도기관선거 ▶ 결장사 채택 ▶ 폐회식

6일: 김정은 국부위원회의 제1위원장의 개회사  
7일: 당 중앙정치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및 토론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주요인사의 토론 등 진행 예상  
8일: 공로자에 대한 당의 축하 전보문 전달, 당 규약 개정안(이제)에 대한 토론 및 결정도 이뤄질 전망  
9일: 중앙위원회 전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을 비롯해 중앙위 비서,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 등을 선출, 북한 주민인 김 제1위원장의 위원과 후보위원 등을 선출, 군중이 참여하는 마오쩌둥비상도 열리고, 김 제1위원장의 폐회사와 함께 마무리 진행

대회에 불참하는 것은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북중 관계의 현수초를 또 한 번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다. 1980년 6차 노동당 대회 때에는 118개국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중국은 당시 리선넨(李先念) 중국 부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을 파견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60오나라의 재사 노숙

노숙(魯肅, 172-217)의 자는 자경으로 임회군 동성현 출신이다. 촉의 제갈량과 지략을 모아 조조의 남하를 막고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한명이다. 삼국지 열전에 따르면 집안이 부유했고 천성이 베풀는 것을 좋아했다. 재물을 많이 풀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인재들과 사귀는 것을 즐겼다. 일찍이 오의 실력자 주유와 친교를 맺었다. 주유는 손권에게 노숙같은 인재를 널리 구해야 큰 공업을 이룰 수 있다며 중용할 것을 건의했다. 손권은 노숙과의 술자리에서 천하의 정세를 물어보았다. 그는 “한나라 왕실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조조는 삼국로 제거되지 않는다. 강동을 차지하고 천하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형주의 유표를 쳐서 장강 유역을 차지해 제왕이 되어 천하통일을 꾀해야 한다”는 단계적 천하통일론을 제시했다.

되어 있다. 주유가 익주를 칠 준비 중에 급사하면서 그가 오나라의 국정을 이끌었다. 217년 죽을 때까지 오와 촉은 비교적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했다. 양국의 국력은 위에 비해 한참 떨어지며 천하통일의 대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을 갖고 있었다. 제갈량의 목표는 ‘한 왕실의 부흥’이지만 그는 한 왕실의 부흥은 물 건너 간 것으로 생각했다. 노숙과 제갈량의 천하상분 구상의 키는 형주였다. 형주를 장악한 후 익주를 쳐 위나라와 한 판 승부를 벌인다는 전략이었다. 그는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 형주 전체를 유비에게 맡겼다. 유비는 이를 바탕으로 익주를 장악할 수 있었다. 반면에 조조에게는 제왕이었다. 조조는 충격을 받아 손에 잡고 있던 붓을 놓쳐버렸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러나 214년 유비가 촉을 장악하자 오와 촉의 관계가 험악해졌다. 양국관계 회

## 삼국정립 국면 형성에 큰 역할

조조는 유종을 제압해 형주를 손안에 넣고 강동 지역을 차지하려 남하 준비를 서둘렀다. 촉의 제갈량과 오의 노숙은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주적인 조조에 대항해야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오의 조정은 장소 등의 온건론과 주유와 노숙의 강경론이 격렬히 대립했다. 노숙은 “제가 조조에게 항복한다면 현령 정도의 벼슬을 받고 목숨은 부지할 수 있지만 주군은 항복하면 어떠한 대접을 받을지 상상할 수 없다. 천하로서는 철저하게 항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항전론을 주장했다. 결국 항전론이 채택되고 제갈량의 화공 전략에 힘입어 적벽에서 조조군을 대파할 수 있게 되었다. 적벽대전 이후 형주를 양분한 오와 촉은 매우 미묘한 상황에 빠졌다. 촉은 제갈량의 천하상분지계에 따라 형주를 기반으로 익주를 장악해 위·오·촉의 삼국정립을 추진하려 하였다. 주유 역시 형주와 익주를 장악하면 중원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 주유는 촉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노숙은 위에 대항하는 공동 파트너로 인식했다. 삼국지 노숙전에는 “그가 체격이 컸고 어려서부터 강력한 절조가 있었으며 특이한 계획을 잘 냈다”고 기록

북에 노심초사했던 그가 217년 세상을 떠나고 여몽이 뒤를 잇자 두 나라는 긴장관계에 들어갔다. 여몽은 주유처럼 반유비적 성향이 강했고 위나라와의 우호 관계 재건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후 오나라는 형주의 장사, 영릉, 계양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유비는 거절했다. 양군은 의양에서 서로 대치했다. 노숙은 “우리 주군이 분래 땅을 빌려준 것은 그대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익주를 얻으면서 형주를 돌려주려는 뜻이 없고 단지 세군만 돌려달라는 데도 명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 관우 측은 “망이런 덕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일뿐 어찌 영원히 가지려 하느냐”며 영토 양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후일 관우가 여몽에게 형주를 잃을 때까지 긴장 관계는 계속되었다. 217년 그가 46세에 세상을 떠났다. 손권은 “옛날 노자경은 일찍이 내가 제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형세 변화에 밝았다고 할만하다”며 슬픔을 참지 못했다. 그는 제갈량과 더불어 삼국정립의 국면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낸 인물로 평가된다.

## 일본 구마모토 지진

### 농수산 피해 1조1000억원

일본 구마모토(熊本) 강진에 의한 농림수산 관련 피해가 1022억원(약1조9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전했다. 이는 1995년 한신(阪神)대지진 당시 농림수산업 피해액(9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다.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재해 피해로도 가장 큰 액수다. 구마모토현의 잠정 집계 결과 피해는 특산품인 수박과 축산업을 비롯해 저수지, 항구 파괴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었다. 분야별로는 농업이 7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저수지 붕괴, 농로 붕괴에 의한 농지 피해 등 농지 피해가 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축사나 시설하우스 등이 이어지며 농업시설 피해도 276억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임업 235억원, 수산업 19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강진 이후 이날 오전 6시까지 총 114회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은 집계했다. /연합뉴스



佛 노동법 개정 반대 격렬 시위 1일(현지시각) 노동절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와 행사가 열린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져 지하철 입구에 불이 붙자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20년 노하우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평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평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인근 ▶ 감평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평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평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안구 안청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평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평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평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안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차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평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점 ▶ 감평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평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